

청소년 73% 家出충동 느낀적있다

서울Y서 밝힌 실태와 대책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 그러나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출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한 보

후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유혹이나 유해업소를 배회하며 비행 또는 범죄세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YMC

A주최로 열린 「가출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서울시립아동상담소 李永熙소장은 「오늘날의 청소년가출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들 가출청소년의 비행및 범죄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교복 두발자율화로 인하여

가출청소년 단속 선도가 어렵지만 가정에서의 가출방지 노력과 민간청 소년단체의 가출방지 프로그램이 더욱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립아동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18세 청소년의 가출은 지난 75년 7.5%에서 90년 1.6%로 크게 줄어든 반면

15세가출은 75년 2.1%에서 90년 7.9%로 증가했다는 것.

또 가출청소년의 단속원인을 보면 절적이 신문을 팔기 절적이 행위는 75년 26%에서 87년 11.7%로 줄어든 반면 절도우범 비행 등 불량행위는 75년 8.0%에서 87년 42.9%로 크게 늘었다.

또 서울Y 전문상담원 金會成씨는 「청소년가출의 주원인은 일시우주의 교육정책과 연관적인 가정부위기, 부모의 과잉보호등이라며 이들에게 가족간의 심리적 연대감을 심어주는 가족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유해업소에 노출된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가출청소년 쉼터」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Y가 최근 서울시 거주 남녀중고교생 2천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출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중 72.7%가

평소가출충동을 느낀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들이 가정에서 가출충동을 느꼈 때는 「부모가 이유도 묻지 않고 야단만 칠 때」(30.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에서 내준 재물을 몰라줄 때」(17.2%),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때」(14.0%), 「지나친 간섭과 과잉보호」(7.2%) 순이었다.

또 학교생활에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21.4%), 「시험성적이 걱정될 때」(20.3%), 「친구를 에게 따돌림당할 때」(11.9%), 「시험이 다가왔을 때」(10.5%) 등 시험위주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걱정으로 가출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중 가출했을 때 레스토랑 술집 등 유해업소에 취직한 경험이 있는 학생도 21.1%에 이르러 청소년가출이 곧바로 청소년비행이나 청소년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가출청소년 유해업소를 범죄현장에 대한 법적 대응책」에 관해 李錫允변호사는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유해업소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연령규제 관련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호대상자인 청소년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變호사는 또 청소년보호관련법규의 정비및 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의 가출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가출청소년 쉼터」등의 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入試압박 과잉보호가 주원인 유해업소 늘어 非行가능 높아 보호범위 재조정 「가출자 쉼터」마련해야

많은 경우 「가출자 쉼터」에

〈李英伊기자〉